

통일염원의 동산



겨레의 집 동남쪽에 위치한 통일염원의 동산에는
무지개 형상의 탑과 통일의 종을 설치하여 빛과 소리로
민족공동체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의장에는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새긴 벽돌을 쌓아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

2020 DECEMBER VOL.394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000만 민중이여
분투하여 쉬지 말라!

나석주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0 December Vol. 394

12



Coverstory

민족공동체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앞에
겨레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합니다.
이제 진정한 민족의 합일을 열망하며
지난 100년의 의지와 새 희망을 담아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해봅니다.

일러스트: 오현균 작가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i815.or.kr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천안라00001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이준식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이봉근, 고명재, 구병준, 권동운, 엄진일, 오세호, 이선화, 이정희, 정경민, 주계운

시간의 증언

04 오늘을 여는 풍경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06 자료로 보는 역사 이야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한
최초의 역사서

08 그때 그 역사
식민지 불법 수탈을 없애고자
목숨을 던지다

12 밑줄을 긋다
폭탄 투척 의거
나석주



역사의 실마리

1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진정한 독립의 길

16 아름다운 인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버팀목
김봉준·노영재 부부

20 이달의 독립운동가
식민지 교육과 민족차별에
맞서 싸운 학생 독립운동가 윤창하

24 한국인의 터전: 미주 편
미주 한인 여성독립운동
단체의 결성

26 역사 바로알기
친일문학에 담긴 의미

28 절체절명의 한국사
나폴레옹 3세와의 전쟁
병인양요



세상의 발견

31 기념관 소풍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다

32 이 땅의 숨결
겨울 속으로 향한다
삼척

36 영화관에서 만난 역사
식민주의에 희생된
조선의 호랑이

38 신조어 사전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말말말

40 일상 돋보기
월급날

42 또 하나의 제언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중심축이어야

46 기념관 소식



조국의 자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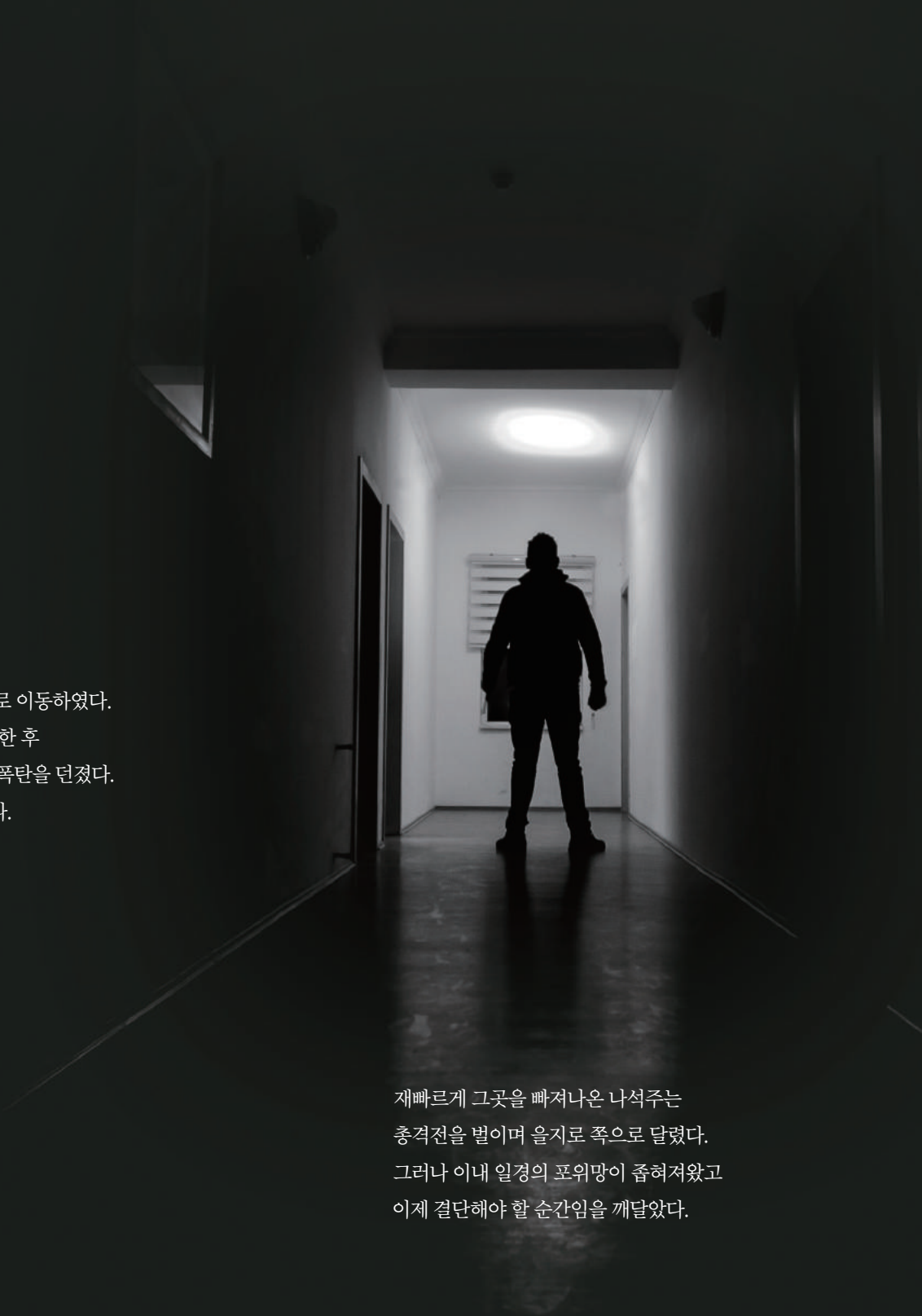
위하여

1926년 12월 28일, 찬바람이 매서운 경성 거리.
의열단원 나석주는 조선식산은행 앞에 서있었다.
은행은 연말이라 일본인 고객들로 붐볐다.
그는 폭탄을 창구 앞으로 던진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웅성웅성 소란스러웠으나, 기대한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서둘러 인근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이동하였다.
현관에서 제지하는 일본인 수위를 사살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총을 난사하면서 남은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이 소련제 폭탄 역시, 불발이었다.

재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온 나석주는
충격전을 벌이며 을지로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이내 일경의 포위망이 좁혀져왔고
이제 결단해야 할 순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가슴에 스페인제 권총을 겨누었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그대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희생한다.
2,000만 민중이여, 분투하여 쉬지 말라!”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는 순국하였다.
자유와 행복의 밑알을 남긴 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한 최초의 역사서 『한일관계사료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사료편찬회' 위원들(1919)

『한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이래 편찬한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이다. 이 자료는 3·1운동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영문판 기관지인 「Annual Reports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의 왜곡 보도에 대응하여 3·1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1919년 5월 12일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무위원 조완구(趙琬九)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국무위원 조완구는 시정 방침 연설에서 “장래 방침에는 3월 1일부터 진행한 역사서를 편찬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안창호가 국제연맹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기 위해 1919년 7월 정부령으로 국무원 내에 ‘임시사료편찬회’를 설치하였다. ‘임시사료편찬회’는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총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총재에는 당시 임시정부 내 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주임에 독립신문사 사장 이광수(李光洙), 간사에 김홍서(金弘敍)를 임명하였다.

‘임시사료편찬회’는 7월 초에 활동을 시작하여 사료의 수집·정리·집필·인쇄를 거쳐 9월 23일에 『한일관계사료집』 전 4권 100질을 간행한 후 국무원으로 이관하였다.

각 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권은 편찬 목적과 함께 5개의 장으로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역사를 편년 순으로 정리하였다. 제2권은 7개의 장으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거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3권은 6개의 장과 3개의 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제병탄 이후 3·1운동 발발 직전까지 자행된 일제 탄압과 식민지 지배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서술하였다. 제4권은 7개의 장과 별부(別附)로 구성되었



한일관계사료집

으며 3·1운동의 원인·경과·결과를 망라한 3·1운동을 정리하였다.

당시 등사한 『한일관계사료집』 100질 중 현재 완질로 전하는 것은 독립기념관 소장본이 유일하며 2018년 5월 8일 등록문화재 제711호로 지정되었다. 『한일관계사료집』은 편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광수가 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탈자 문제와 체제의 혼란스러움, 서술 내용의 오류 등 문제도 적지 않았다. 또한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임에도 영문본은 확인할 수 없다. 국제연맹이 1919년 9월에서 이듬해 1월로 설립이 미루어져 국한문본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수집·정리하여 일제의 침략과 지배로 단절되었던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3·1운동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정리가 이루어진 역사서로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 상권』 편찬의 기초 사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식민지 불법 수탈을 없애고자 목숨을 던지다

나석주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제39호(1931)에는 '조선 사람은 몇몇 부자를 제외하고 나면 뚱 가래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며 슬픈 현실을 토로하였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탈한 일제는 표면적으로 "조선 민중은 직접 짐의 위무 아래에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배 20년이 지난 후 우리 백성들의 삶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해졌다.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

일제 식민통치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조선에서 수탈해가는 포악한 정책이었다. 그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보다 더욱 잔혹한 통치 체제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을 힘들게 하였던 대표적인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떠올려 보자. 1908년 일본이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독점하여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대표적인 국책회사가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이다. 이는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델로 모방한 식민지 수탈 기관이었다. 이 회사는 조선의 토지를 전매한 후 5할 이상의 소작료와 춘궁기 양곡을 빌려주고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조선인들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내몰아간 전형적인 불합리한 제도였다. 계속된 불법적이고 가혹한 수탈로 조선인들은 집단으로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이주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였던 핵심 기관 중 하

나인 특수은행은 조선식산은행이었다.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두 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폭탄을 던져 결렬한 투쟁 끝에 자결한 인물이 바로 나석주였다. 조선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배출구 두 곳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불태운 젊은 사나이의 결심은 목숨을 던진 독립운동이었다.

나석주의 인생 항로와 의열투쟁

의열단 단원인 나석주는 1892년 황해도 재령에서 아버지 나병헌과 어머니 김해 김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황해도 재령은 을사늑약 이전부터 근대교육에 의한 민족의식 양양에 앞장섰던 지역이었다. 대한협회 해주지회는 강습소와 야학교 설립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결의하고 시행에 노력하였다. 또한 학구(學區)의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군청과 관찰부에 보고하는 등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군이나 면 단위로 조직된 민회·민의소·농무회 등도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에 노력하였



조선식산은행 본점

다. 민간의 지식 계발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의무교육 일환으로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민족교육을 시행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대한제국기 최대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의 서북지역 책임자인 백범 김구는 황해도 안악에서 양산학교를 운영하였다. 하기 방학을 이용한 사범강습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 김구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방향타'였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후 양산학교에서 굳건한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불태우는 등 독립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나석주는 민족을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로 독립운동의 뜻을 다져나갔다. 그는 1913년 21세가 되던 해에 중국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하던 중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독립운동을 도모하다가 1919년 3·1운동 시위 주도로 체포되었다.

3·1운동이 시작되면서 청년 나석주는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장엄한 활동을 기획하게 된다. 군자금 마련을 위하여 6인조 강도로 변장해 당시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의 부호 최병항의 집에 찾아갔다. 복면을 쓰고 정중히 절을 하며 "저희는 강도가 아니라 조국 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마련하려 찾아온 젊은이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최 부자는 나석주인 것을 직감하고 군자금을 전해준 뒤 강도가 들었다고 일본 경찰에 신고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며 그 상황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나석주는 김덕영·최호준·최세욱·박정손·이시태 등과 6인조 강도로 활약하며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군자금을 상하이로 보내었다. 결국 6인조 연쇄강도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이후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0년 상하이로 망명한다. 나석주는 상하이에서 당시 임시정부 경



나석주 의거지(동양척식주식회사 터)에 건립된 표지석과 동상

무국장이며 자신의 스승인 김구를 다시 만난다. 김구의 경호를 맡아 활동하기 시작하며 스승의 지도를 받아 독립운동에 계속 참여한다. 또 이동휘가 세운 무관학교 등에서 전술전략을 연마한다. 그러던 중 유자명의 소개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주도

1926년 나석주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바로 유림대표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김창숙과의 만남이었다. 그해 5월 김창숙과 김구는 텐진에서 국내외 정세를 토론하며 독립운동의 방향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즉 두 사람은 일제 침략자들과 친일 부호들을 제거하여 가난에 허덕이는 동포들을 구제하고 민족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표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김구는 이화학과 나석주 두 청년을 천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국 나석주가 결정되었다. 김창숙은 의열투쟁에 나선 나석주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다. “민족의 고혈을 빨고 있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

사가 그대의 손에 폭파되는 날 일제의 간담이 서늘할 것이며, 잠자고 있는 조선의 민족혼이 불길처럼 다시 타오를 것이요. 대의를 위한 무운(武運)을 비는 바이요.”

1926년 12월 26일 인천항에 35세의 중국 산둥성 출신의 마중덕이란 남자가 상륙한다. 중국인으로 둔갑한 사나이는 나석주였다. 그가 민족혼을 일깨우려 단신으로 서울로 향하는 길은 오직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기 위한 희망뿐이었다. 그는 중국인 전용 여관에 머무르며 동태를 살폈다. 먼저 식량과 자원을 수탈한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고 불발되었다. 일제는 폭탄을 던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여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었다.

나석주는 다음 목표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습격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파할 결심으로 많은 일본인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다. 결국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황금정(현재 을지로 1가) 쪽에서 결렬한 총격전을 펼치던 중 자신이 지닌 총으로 자결을 선택하였다. 나석주는



나석주 의거 보도 기사 『동아일보』 1927. 1. 13.)

일제 경찰이 다가오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뜻을 전하고 장렬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다. 2,000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이는 군중을 향해 조국 독립의 염원을 전달한 처절하고도 담대한 의사의 외침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동아일보』(1927. 1. 13.)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동척 사옥 내부와 동문 밖, 그리고 황금정 2정목 길거리 등 사건 현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연출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마경관과 무장경관들이 삽시간에 황금정 일대를 에워쌌다. 실내와 길 위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들것과 자동차에 실어 잇따라 병원으로 옮기는 광경은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이었다. 다바타 경부보는 총알이 심장을 관통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자동차 안에서 절명하였고, 머리에 총을 맞고 문밖 돌계단 위에 쓰러져 있던 수위 마쓰모토와 가슴에 총을 맞고 길 건너편 나카니시 자전거포 앞에 쓰러져 있던 시계점 점원

기무라는 총독부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끝내 절명해 사망자는 도합 3명이었다.”

사망 직전에도 조국의 광복을 염원

그 상황에서 경찰은 중국옷 입은 범인을 조선총독부병원 외과 수술실로 옮겼다. 범인이 자기 가슴에 쏜 3발의 총탄 중 2발은 관통하였고, 1발은 폐에 박혔다. 출혈이 심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일제는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그 진상을 조사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범인의 정체를 타국에서 들어온 ‘테러리스트’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다. 결국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일제 경찰의 추궁 끝에 입을 열었다고 한

다. 당시 상황을 『삼천리』(1931년 7월 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내가 나석주다, 공범은 없다”라는 말밖에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다가 그다지 고민하는 빛도 없이 오래지 않아 절명하였다.

나석주 의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자결하였던 김상옥처럼 1920년대 의열투쟁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서울 명동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며 옛날 동양척식주식회사였던 자리에 그의 늠름한 모습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나석주 의거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친 피와 땀, 숭고한 애국정신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희생과 봉사로 계승되었다.

폭탄 투척 의거

나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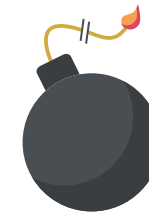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항쟁

- **1892년 2월**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진초리에서 출생.
- **1907년~**
보명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하고 졸업 후에는 농사를 지음.
- **1910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경술국치 이후 나석주 집안은 일제에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
- **1913년~**
일제의 지독한 수탈에 격분한 나석주는 만주로 망명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 북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음.
- **1919년~**
국내로 다시 들어온 그는 3·1운동에 참여하고, 50여 명의 동지들과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해 무기를 구입한 뒤 친일파를 숙청하고,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냄.
- **1926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상하이로 망명. 김구가 지휘하는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정부 요인의 경호를 담당.
- **1926년**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입단. 6월 텐진에 체류하고 있던 민족지도자 김창숙을 만나 일제의 경제 침탈을 응징하기로 계획하고, 그해 12월 중국인 노동자로 변장한 뒤 인천으로 잠입.
- **1926년 12월 28일**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 이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으나 이곳에 투척한 폭탄도 터지지 않음. 곧이어 일제의 추격에 자결을 시도하였고 자신의 이름과 의열단원임을 밝히고 순국.

나석주의 투탄 의거 후

폭탄은 불발, 일제는 타격

비록 거사는 실패하였지만 일제 경찰 간부와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의지를 밝혔다.



유림의 검거 열풍

대낮에 경성 도심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일본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다. 조사 결과 김창숙이 유림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둬간 사실을 알아내고 관련 인사 600여 명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유림단사건'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방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 기관이었다. 토지 매입과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국유지 불하로 거대 지주가 되었고, 소작인들에게 고액의 소작료를 받아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였던 핵심 기관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함께 중요한 축이었다. 식산은행은 채권으로 확보한 일제의 자본을 조선의 산업 기관 및 개인에게 대부하고, 그로부터 회수한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기관이었다.

진정한 독립의 길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도 70년이 훌쩍 넘었다. 식민지 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배 넘게 흘렀다. 그런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일본어도 한몫한다. 이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아닌 데 말이다.

광복 이후 일본어 퇴출하기

광복 당시만 하더라도 몸에 밴 일본어는 쉽사리 청산되지 않았다. 거리 여기저기에서 ‘감상(さん)’, ‘이상(さん)’과 같은 호칭은 물론 ‘먼저 실례(失禮)한다’와 같은 일본식 표현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 “하이”라고 했다가 “네”라고 고쳐 대답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말을 다시 찾는 일이 시급한 문제였다. 일본식 간판, 일본식 이름, 일본식 말투를 하루속히 없앨 방도를 찾자는 호소도 있었다. 때에 맞춰 초등·중등 교과서 용어부터 한글로 바꾸기로 하여 ‘산술’을 ‘셈본’으로, ‘평균’을 ‘고른 수’로, ‘직경’과 ‘반경’을 ‘지름’과 ‘반지름’으로 고쳐 부르자 불만과 이견들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말 도로 찾기』 책자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내용은 ‘벤또(辨當)-도시락’, ‘혼다데(ほんだて)-책꽂이’, ‘가감[加減, かげん]-더하고 빼기’, ‘간스메[缶詰, かんづめ]-통조림’, ‘후미끼리(ふみきり)-건널목’ 등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일본어는 점차 일상생활에서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이 “지

금 겐세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료 의원 질의에 야지 놓는 의원은 퇴출해 달라”, “국민 혈세로 막 이렇게 뽀빠이 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하여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일본어를 사용한 것에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낀 것이다. 이런 일제 찌꺼기 용어들은 1930~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말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도 사라진 말이 고, 노년층이 아니면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데다 대부분 비속어나 은어로만 사용되고 있어 공식에서는 퇴출해야 할 용어이다.

우리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일본어가 마치 우리말처럼 쓰이는 예도 적지 않다. 이빠이, 기스, 꼬봉, 가라오케, 오야붕, 와사비, 나가리, 다팡, 와리바시, 요지, 쓰메키리, 빠께스. 다라이, 빠꾸, 오라이, 스끼다시, 양꼬, 다마내기, 히야시, 오텍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외에도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는 예도 허다하다. 가봉, 견적, 낙서, 내역, 노견, 선착장, 차압, 구좌, 매점, 납득, 흑판, 순번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어인 줄 모르고 쓰는 경우다.

일본어 찌꺼기 청산

일본어 찌꺼기 청산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고려시대 원 간섭기 공민왕의 고민과도 닮았다. 고려는 100여 년 가까이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몽골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다. 변발(變髮)과 호복(胡服)은 당시의 대표적인 몽골 풍습이었다. 공민왕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몽골풍을 없애고자 하였다.

당시 신하가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뻗어 지리산에서 마칩니다. 그 산세가 물을 뿌리로 하고 나무를 줄기로 한 땅에 뻗어 있습니다. 물은 흑색이고 나무는 청색이므로 흑색은 부모가 되고 청색은 몸체가 됩니다. 풍속이 땅의 이치에 잘 따르면 창성하고,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재앙을 입습니다. 풍속이란 군신과 백성들이 사용하는 의복과 모자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문무백관들은 검은 옷을 입고 푸른 갓을 쓰게 하고 승려들은 검은 두건과 큰 관을 쓰게 하며, 여자들은 검은 김옷을

입게 하여 땅의 순리에 따르는 풍속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건의하자 공민왕이 그대로 따랐다. 이는 변발을 풀고 몽골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렇다고 몽골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몽골의 언어와 풍속 일부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다. 7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말이다. 가령 ‘장사치’, ‘벼슬아치’ 등 사람을 가리키는 ‘치’라는 언어, 임금의 음식상을 가리키는 ‘수라’는 몽골어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애용되고 있는 ‘만두’, ‘설렁탕’, ‘소주’와 같은 단어도 그렇다. 조선시대 영조 대에는 몽골 풍습이었던 부녀자들의 가채(加髻)가 유행하자 이를 금지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공민왕이 우리 생활 속 말과 옷차림을 단속하였던 것은 침탈당한 역사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하기 위한 노력이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식 음차어 (30개)	망년회	송년회
	견습	수습
	모포	담요
	고수부지	둔치
	구좌	계좌
	노견	갓길
	가불	선지급
	가처분	임시처분
	마대	포대/자루
	익일	다음날
	거래선	거래처
	종지부	마침표
	대절	전세
	도합	합계
	보합세	주춤세
	불임	납입
일본식 한자어 (20개)	고참	선임
	다반사	예삿일
	수취인	받는 이
	잔고	잔액

있으며, 400여 년이 지나서도 영조는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였다. 어쩌면 일제로부터의 진정한 의미의 독립은 공민왕과 영조의 노력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침탈자들의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말 속에 섞인 것부터 바뀌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시한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제시한다.

	일본어 투 용어	권장 표현
일본식 음차어 (30개)	모찌	찹쌀떡
	유도리	윙통성
	나가리	무산
	나와바리	구역
	단도리	단속/채비
	땡땡이	물방울
	만땅	가득
	쇼부	결판
	와사비	고추냉이
	찌라시	전단지
	가오	체면
	쿠사리	핀잔
	노가다	막노동
	대빵	대장
	나시	민소매
	스키다시	결들이찬
	아나고	붕장어
	가라	가짜
	간지나다	멋지다
	무데뽀	막무가내
	이빠이	많이/가득
	곤조	고집/근성
	기스	흠집
	뽀빠이	나누다
	사시미	생선회
	와꾸	틀
	지리	맑은탕
	뽀록나다	들통나다
	빼까뽀쩍	반짝반짝하다
	뽀사리	실수/음이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버팀목 김봉준·노영재 부부

김봉준 선생은 수많은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지만 6·25전쟁 중 납북되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부인 노영재는 1921년 상하이로 망명한 뒤 25년간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임시정부 요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독립운동 뒷바라지에 힘썼다. 김봉준과 노영재 부부의 집안은 장남 김덕목, 큰딸 김효숙과 사위 송면수, 둘째 딸 김정숙과 사위 고시복 등 7명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문이다.

100년 전 기억을 되살리다

지난 2019년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맞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전시회와 학술회의 개최는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민족의 저력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는 계기였다. 필자에게 주목을 끈 특별전시회는 단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대한 독립 그날이 오면>이다.

2부 전시실에는 임시정부 유지에 온몸을 던진 김봉준·노영재 부부의 단아한 유품이 있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사용한 트렁크 2점과 태극기였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인생 역정은 트렁크를 통해 단편적 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손때를 물씬 풍기는 트렁크 옆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입었던 중국 복식과 양복을 재현하여 생동감을 더하였다.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한 태극기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이들 부부는 바

느질로 정성을 기울여 태극기를 만들었다. 부부가 한 땀 한 땀 독립의 그날을 꿈꾼 흔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멀고도 머나먼 당시의 역사가 다가왔다.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자각하다

김봉준은 1888년 9월 27일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구룡리 용동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의현(金義鉉)과 모친 김씨 사이에 3남 2녀 중 셋째였다. 본관은 의성, 자는 군석(君錫), 호는 당헌(棠軒), 이명은 김기원(金起元)이다. 1904년을 전후로 의성 김씨 집성촌인 용동에 기독교는 1904년 전래되었다. 예수 재림교회 제7안식교회가 한국에 최초 세워진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가족들의 안식교 입교는 김봉준의 의식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14세까지 한학을 공부하며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냥 등으로 소일하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다. 전통교육은 훗날 여유만만한 대인관계로 자신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일제 침략으로 사회적인 불안은 확산되었다. 시세 변화에 부응하려는 의지는 1908년 보성중학교 농림과 입학으로 이어졌다. 재학 중에는 대한제국기 최대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와 청년학우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 대열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1911년에는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무사히 학업을 끝마쳤다. 졸업 후 대동강 지류인 동창천 하류 대안 갈대밭 개간과 동시에 수로를 개설하는 등 농업 기반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신민회와 청년학우회의 이상촌건설운동 일환이었다. 신민회는 국권수호운동으로 민족자본 육성과 아울러 모범적인 농촌 개발에 착수하였다. 강제병탄을 전후로 이상촌 건설운동은 해외 독립운동기지건설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지사들과 신민회원들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들은 서간도 유허현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반면 김봉준은 국내에 남아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간척과 농지 개간사업에 매진하였다. 이처럼 시대적인 소명 의식을 인식한 의협심이 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대동단결로 한인사회 버팀목이 되다

일제의 무단통치는 3·1운동으로 폭발되었다. 김봉준은 일제의 야만적인 만행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임시정부 군무부원과 임시의정원 의원과 비서장을 맡았다. 1921년 안창호와 함께 홍사단 원동위원부를 창설하는 등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정보 교류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1928년 상하이 대한인교민회 제5대 단장을 맡는 등 한인사회 대동단결에 힘썼다. 1930년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경영을 맡아 『독립운동사』 편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인성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한인 자제들의 독립의식과 항일정신 고취에 노력하였다.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려는 훈화는 학생들에게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키는 자극제였다. 1935년 한국국민당 간부로 활약하면서 1938년 홍사단 원동위원장을 거쳐 이듬해 임시정부 제15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냈다. 김봉준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물이었다. 1940년에는 한국독립단 위원, 1943년부터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아 1945년 11월 요인들과 함께 환국하였다.

노영재의 후원이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밑거름되다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하여 은밀히 선전원과 특파원을 국내로 파견하여 부족한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다. 김봉준 가족은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다가 특파원이 일경에 체포됨으로 절박한 순간을 맞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여 난관을 모면해 나갔다. 당시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보냈던 대한민국의국부인회장 김마리아는 고문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임시정부는 김마리아를 상하이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때 도인권과 김봉준 가족은 그녀 탈출에 함께하였다. 힘든 과정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일행은 인천을 출발하여 무사히 상하이 황푸강 부두에 상륙할 수 있었다.



김봉준 어록비(독립기념관 경내)

가족은 프랑스조계 보강리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교육회 본부 사무소로 홍사단원인 박석홍이 동신공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인삼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부인 노영재는 바느질 솜씨가 탁월하여 넥타이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황푸탄 선착장에서 판매하여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다. 이윤 중 일부는 임시정부 요인들 식사 대접에 사용할 만큼 가정살이를 도맡았다. 곤궁할 때에는 야채 시장에 직접 가서 배추 시래기를 주어와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부인의 살림살이는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임시정부 유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국민적인 여망에 순항하던 임시정부는 국제정세 변화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외교론에 치중된 활동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더욱이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내분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를 수습하려고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마저 뚜렷한 대안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식물정부'였다. 김봉준을 비롯하여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원들은 한국유일독립당 상하이측 성회와 같은 5개 축성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한국독립당 관내축성회 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다음 단계인 주비회 조직에 앞장섰다. 부단한 노력에도 1929년 유일독립당 상하

이지부 해산을 시작으로 관내 유일독립당운동은 유아무야되었다. 그럼에도 한국독립당의 통일전선운동은 임시정부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1930년 7월에는 임시의정원 내에 상임위원회 조직이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상임위원회는 임시정부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검토하는 회계 감사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날에 안창호는 프랑스 조계 경관에 곧바로 체포되었다. 일제 영사관경찰은 임시정부 청사, 교민단사, 임시정부 요인들 집을 급습·수색하였다. 아들 김덕목도 체포되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등 아픔을 맛보았다.

1932년 11월에는 광저우에 한국독립당 광둥지부장으로 한인 청년들에게 유학을 알선하였다. 특히 황푸군관학교와 중산대학 입학 주선, 학비면제, 생활비 보조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아들·딸은 물론 후일 큰 사위가 된 송면수 등은 중산대학에 입학하였다. 더불어 중국 남부지역 독립운동 거점 강화와 중국인들과 통일전선 구축을 자임하고 나섰다.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으로 이전하자, 김봉준은 최우선 과제로 독립운동계 통합임을 인식·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을 이끌고 한국독립당통일동지회를 결성하고 조선민족혁명당 개편을 전제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합병하였다. 조선의용대 본부와 화중·강남지구 잔류 병력도 중국 군사위원회 요구와 임시의정원 결의로 한국광복군 지대로 개편하면서 통합되었다.

한편 1934년 중국 한광사에서 최초 전기인『윤봉길전』이 중국어로 출간되었다. 김봉준은 김기원이라는 이름으로 서문을 썼다. 서문에서 “윤봉길 의거는 한국이 나라를 되찾고 중국이 망국에서 구해지고 동양평화를 이루는 길”이었음을 공언하였다. 그는 한중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나서다

부인 노영재는 25년간을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투사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뒷바라지에 힘썼다. 와중에도 한국혁명여성동맹의 결성과 민족혁명당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아들 김덕목은 일찍이 상하이로 건너가 홍사단에 가입하여 한중 우호 증진과 항일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중산대학에 재학하다가 중앙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중국군에 배속되어 항일전에도 참전하였다. 중국군 상위로 일본군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한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로서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 위원들



김봉준



상하이 인성학교 학생과 교직원

장녀인 김효숙은 1919년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 인성학교를 거쳐 난징 중산대학을 졸업하였다. 동생 김정숙 등과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여 선전공작에 앞장섰다. 한국광복군선청년공작대에 가입하여 대일 선무공작과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는 한편 한인 아동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혁명여성동맹 부회장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었다.

큰사위 송면수는 중산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조직하여 항일전에 참전하였다. 자신이 직접 각본을 쓴 〈국경의 밤〉, 〈상병의 벼〉, 〈전야〉 등 항일연극을 공연하는 등 문화선전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는 한중 인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일환이었다. 특히 이범석이 이끄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의 정훈조장으로 미국정보처(OSS)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다. 국내정진군 황해도 반장으로 임명되어 국내진공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김정숙은 김봉준 막내딸로 중산대학 재학 중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는 등 항일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한국독립당에 가입한 후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상임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적심리공작을 담당하는 한편 이후 임시정부 교통부 비서, 의정원 비서, 법무부 비서 겸 총무과장 등을 맡았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작전처 심리작전연구실 보좌관으로 전단 작성, 전략 방송, 원고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1945년 11월까지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주화대표단 비서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기강, 1940. 6. 17.)

김정숙 남편인 고시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주쿄상업학교(中京商業學校)를 졸업한 후 1931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한인에국단에 가입하여 비밀 단원으로 국내외를 연결하면서 군사자금 모집, 일제밀정 암살, 기밀문서 수발 등을 수행하였다.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를 졸업하고 중국군 9사단에서 복무하던 중일전쟁 당시 쉬저우(徐州)·난커우(南口) 등지의 전투에 참전하였다. 1940년 광복군 총사령부 전령 장교로 임명되어 중국 각지를 돌며 수십 명의 청년을 모집하는 등 광복군 병사 모집에 힘을 쏟았다. 이후 임시정부 군무부원과 내무부 총무과장으로 활동하였다.

민족국가 건설에 매진하다

김봉준은 귀국 이후 비상국민회의를 발기하는 등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에 앞장섰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 도정부 입법위원의 관선의원으로 김규식·여운형·원세훈·최동오·안재홍 등과 6인합작위원회에 선출되어 헌법·선거법 기초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좌우 합작위원회 대표로서 민족통일운동 추진에 나섰다.

1948년에는 민족자주연맹 상임위원과 선전국장으로 남북 협상에 관여하였다. 5·10선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1950년 5·30선거에서도 성동 을구에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되었다. 와중에 6·25전쟁이 발발하여 7월 27일 인민군에 납북된 뒤 9월에 사망하였다.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식민지 교육과 민족차별에 맞서 싸운 학생 독립운동가 윤창하

식민지 교육에 맞서 동맹휴학에 참가하다
 윤창하는 1908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현산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에 입학하였다. 그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 항일선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광주고보 5학년생 이경채가 일경에 붙잡혀 퇴학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발한 광주고보 학생들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 ‘민족 차별 교사 거부’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이때 윤창하도 3학년 학생들과 동맹휴학에 참여해 식민지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윤창하(尹敞夏)
 1908. 4. 9. ~ 1984. 12. 29.
 전라남도 해남
 건국훈장 독립장(1963)



민족 차별에 맞서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다
 일제에 차별받는 민족의 현실을 탐구하고 독립운동의 방안을 고민하던 윤창하는 학생들과 독서모임을 조직하였다. 1929년 6월 여러 학교의 독서모임이 통합되어 독서회 중앙부가 결성되자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재정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또한 광주고보 독서회의 조사선전부 위원 겸 소그룹 대표를 맡아 사회과학 연구 모임을 이끌었다.
 그러던 중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충돌을 계기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로 전개된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독서회의 간부로 활동하며 시위에 참여한 윤창하는 일경에 붙잡힌 후 2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84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정부는 윤창하의 공훈을 기려 1963년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尹敞夏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건 재판 보도 기사
 (『동아일보』 1930. 2. 20. 동아일보사 제공)
 ①광주지방법원 1층 법정
 ②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400여 명을 수용한 무덕전
 ③광주고등보통학교 전경
 ④현재 170여 학생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청무소

2 윤창하 애국지사증(1963)
 3 윤창하와 부인(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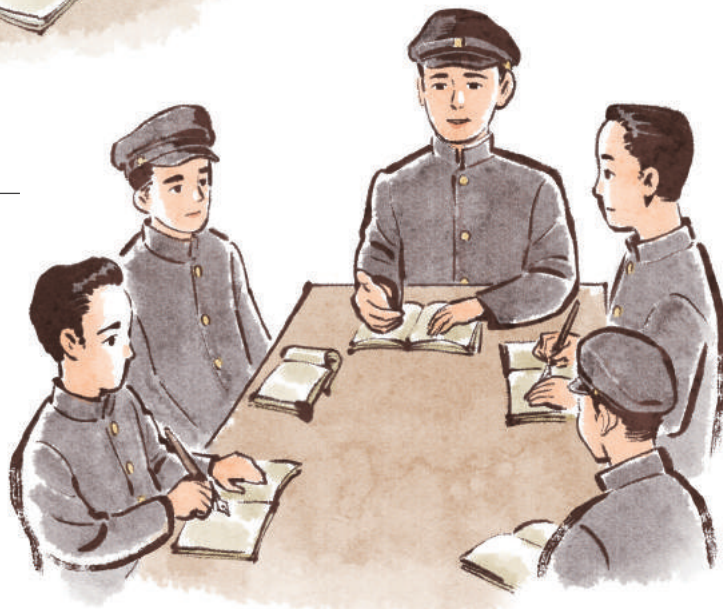
민족 차별에 맞서 싸운 학생 독립운동가 윤창하

윤창하는 1908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현산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할 때 동맹휴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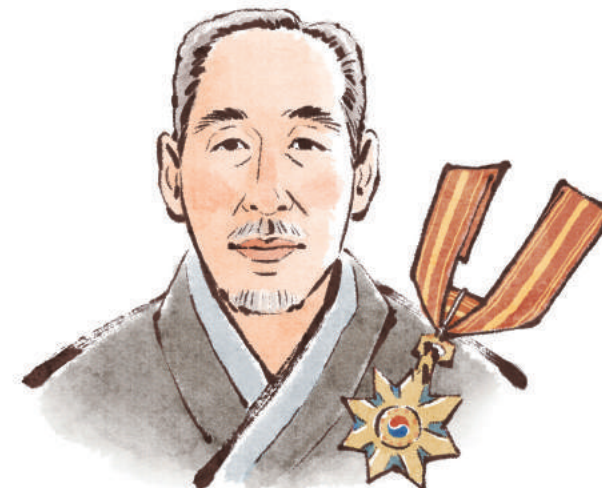
1929년 6월 도쿄 유학에서 돌아온 장재성이
광주에서 조직한 독서회 중앙본부에 윤창하는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비 징수 및 기타 회계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독서회 중앙본부는 회원들의 단결 및 재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소비조합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조직 확대를 위하여 각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윤창하는 임원들과 수차례 논의하여
학생소비조합 설치를 실행에 옮겼다.



독서회 및 소비조합 활동을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윤창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윤창하는 1930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1930년 10월에는 독서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언도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는 윤창하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출옥 이후 옥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그는 1984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이후
1996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였다.

미주 한인 여성
독립운동
단체의 결성

IV. 3.1운동 이후 재미 한인 사회의 변화 ⑦

3·1운동 발발 직후 독립운동의 뜨거운 열기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미주 한인사회로 확산되었다. 미주 한인 여성들도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독립운동 단체들을 결성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북미 한인 여성들의 단체 결성

미국 본토에서 결성된 최초의 여성 단체는 장인환·전명운 의거 직후인 1908년 3월 말경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상향 한국부인회다. 대동보국회의 김미리사, 장경부인, 문경호 부인, 이민식 부인 등이 공립협회 소속의 여성들과 함께 결성하였다. 설립 목적은 도덕 실천, 국민 자격 확충, 자선사업에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인 아동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인사회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장인환·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가 통합된 힘으로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할 때 구국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 소속의 여성들이 만든 것이 한국부인회다. 따라서 한국부인회는 특정 단체의 주의(主義)를 대변한다거나 일방의 정치적 신념에 치우치지 않는 여성단체로 출발하였다. 한국부인회는 1911년 4월 샌프란시스코 내 고아들을 돕는 활동을 펼친 것 외 1919년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북미 한인사회에 여성 단체의 결성을 다시 촉구한 때는 1914년 7월이다. 『신한민보』에 게재한 주수근 여사의 유서 <외양에 나온 대한 부인의 직분>에 따르면 한인 여성

들은 첫째, 남자를 도덕적으로 인도하고, 둘째, 자녀를 조국정신으로 교육하며, 셋째, 부인회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성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그동안 재미 한인 여성들의 활동은 미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1914년 새크라멘토에서 대한부인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새크라멘토 대한부인회는 1917년 3월 맨티카에서 한국부인전도회가 발기될 때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1917년 11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여성들은 대한부인친애회를 발기하고 그 해 12월 20일 조직을 완성하였다. 설립 취지는 “정의를 돈수하며 지덕을 계발한다” 하여 여성들의 수양에 목적을 두었다.

대한여자애국단의 결성

1919년 3월 9일 3·1운동 소식이 미주 한인사회에 전파되자 전 미주 한인들의 독립 열망은 한층 고조되었다.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는 독립의연금 모금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선전외교활동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한인 여성들은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참가한 소녀가 일본군의 군도에 팔이 잘렸다는 소문(The Washington Post 1919년 3월 15일자 기사)에 큰 충격을 받고 비분강개하며 독립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때마침 중앙총회장 안창호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독립의연금 모금활동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각 지역을 순방할 때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한인 여성들에게 ‘부인애국단’의 이름으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3·1운동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메리다에서 독립운동을 표방한 여성 단체들이 잇달아 결성되었다. 다뉴바의 한인 여성들은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단체 설립을 논의한 후 신한부인회(회장 강원신)를 결성하였다. 멕시코 메리다의 한인 여성들은 6월 15일 첫 모임을 갖고 대한부인애국동맹단(단장 김신경)을 결성하였다. 6월 23일 대한부인애국동맹단은 임시의장 김마리안나의 명의로 「공고」 제1호를 공포하고, 독립의 대사업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돕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일찍이 대한부인친애회를 결성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여성들은 3·1운동 이후 나아갈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침을 제정하였다. 즉 1919년 4월 1일부터 일본 물화의 배척, 독립의연금 납부, 일주일에 두 번(화·금) 고기 없는 날 실시, 자기 손으로 의복 세척, 저축한 돈을 독립군에 응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각지에서 여성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해지자 중앙총회는 1919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한민보』를 통해 한인 여성 단체들이 우선 단체 이름이라도 일치해 활동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전에 안창호가 제안한 ‘부인애국단’의 이름을 재차 제안하였다. 또 각지에 분산되어 활동하기보다 중앙기관을 만들어 활동할 것과 하와이의 여성 단체와의 교류도 제안하였다. 1919년 8월 2일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다뉴바, 로스앤젤레스의 여성 대표들은 대동단결의 취지 하에 대한여자애국단을 결성하기로 하고 중앙총회의 인준을 요청하였다. 8월 5일 중앙총회의 공식 인준을 받은 대한여자에 국단은 그 해 9월 말 각 지부를 통합하는 총부(초대 총단장 김혜원)를 조직하고 북미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 단체로 입지를 다졌다.

하와이 한인 여성 단체와 대한부인구제회 결성

하와이 한인사회에 여성 단체의 이름이 처음으로 지면에 드러난 때는 1909년 12월부터 1910년 3월까지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돕기 위하여 전 하와이 한인들이 의연금을 모금할 때다. 이때 신명부인회는 68.60달러, 교육부인회는 10달러를 의연하였다. 신명부인회는 오아후섬 호놀룰루에서 1900년대 후반 경 결성된 것으로 보이고, 가와이섬 골로아에 지방회를 결성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부인교육회도 신명부인회와 비슷한 시기에 오아후섬에서 결성되었으나 세부 지역은 미상이다.

두 여성 단체가 결성된 이후 1913년 4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대한인부인회가 설립되었다. 기존의 여성 단체들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대한인부인회는 하와이 각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였다. 국어교육 장려, 일제 용품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1932. 2. 22.)

배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재난동포의 구제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919년 국내 3·1운동의 소식이 하와이 한인사회에 전파되자 3월 15일 대한인부인회 주최로 41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부인공동회를 개최하고 대한인부인적십자회(회장 송매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당일 구휼금으로 238.98달러를 모금하였는데, 이는 3·1운동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국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1919년 3월 29일 대한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하와이 여성들은 4월 1일 제2차 부인공동회를 개최하고 대동단결의 기치 하에 대한부인국민구제회를 조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설립 목적은 독립운동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의 동족을 구원하고 새로 수립된 임시정부를 협조하는 데 두었다. 4월 4일 공식 임원(초대 회장 손마리아)을 발표하였고 참가한 회원 수는 260여 명에 달하였다.

대한부인국민구제회는 1919년 6월 대한부인구제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3·1 독립선언서를 ‘대한독립선언서’란 이름으로 제작하여 장당 35센트에 판매하였다. 3·1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판매한 수익금을 독립의연금과 구휼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해 11월 국내 동포 구휼금 1,000달러를 모금하여 본국에 송금한 대한부인구제회는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30년 7월 동지회가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동지미포대회를 계기로 동지회와 하와이 교민단 간의 분쟁이 일어난 후 대한부인구제회는 교민단측(후에 대한인국민회측) 대한부인구제회와 동지회측 대한부인구제회로 양분되었다.

친일문학에 담긴 의미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주의 정책에 이바지하고 이를 찬양한 문학을 일컬어 '친일문학'이라 한다. 친일문학은 일제 정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제에 대하여 감지를 갖고 감사하며,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흔들리는 조선의 문화예술

1937년 5월 조선문예회가 결성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친일에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가 주동하여 조직한 이 단체는 조선인들의 사회 교화를 위해서 가요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알려진 가요로는 김억이 작사한 <종군간호부의 노래>, <정의의 수예>, 최남선이 작사한 <김소좌를 생각함>, <정의의 개가>, <충후의용>, <방호단가>, <장성의 파수> 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1939년 4월에는 임화·최재서·이태준이 주동하여 황군 위문 작가단을 결성하였고, 박영희가 <전선기행>을, 임학수가 <전선시집>을 창작·발표하였다.

이후 1939년 10월에 조선문인협회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내선일체를 지향하게 된다. 초대 회장으로 이광수가 선출되고, 조선인 측 간사로 김동환·정인섭·주요한·이기영·박영희·김문집 등이 참여하였다. 이광수는 결성식에서 “협회의 창립 목적은 새로운 국민문학의 건설과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고 연설하였다. 민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친일문학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일제는 식민지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1942년 9월에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킨다. 1943년 4월에는 문인보국회라는 단체를 태동시

키고, 같은 해 9월에 진단학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려 하였다.

친일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

일제는 본격적으로 문학계에 간섭하기 위하여 조선의 작가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을 다루면 ‘국민 문학’이고, 그 반대일 경우 ‘비국민 문학’이라 규정하면서 문학의 내용에 깊이 개입하였다. 심지어 창작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저항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일제에 협력하기로 한 친일 작가들은 스스로 ‘2,000만 조선 민중을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친일문학의 근간은 내선일체의 황민화와 동아공영권의 신체제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뿌리에서 파생되었으며, 조선이 중국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가 이제야 일본과 하나 되어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후자는 서구 근대가 몰락하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일제로 대표되는 동아공영권과 파시즘의 신체제라고 믿는 견해이다. 이렇게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조선인들에게 친일정신을 주입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친일문학을 창작하는 데 있어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징병이 예고된 1942년 중반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어만으로 대중들을 동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문학 창작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친일 작가들은 각각 다른 형태로 문학을 창작하였다.

첫 번째 형태는 일본어 전용론으로 일본어로만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창작을 해야 비로소 일본어의 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지향한 대표 작가로는 김용제·이석훈·최재서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1943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국어문에 총독상을 수상하였다. 제1회는 김용제, 제2회는 최재서,

제3회는 정인택이 수상하였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만든 유사한 성격의 상인 ‘국어문예연맹상’ 제1회는 이석훈이 수상한 바 있다.

그다음, 일본어와 조선어 2개의 언어로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중언어론이 있다. 일제강점기 말 당시 조선인들의 일본어 해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창작할 경우 대중 계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일 작가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그중 이무영은 일본어와 조선어로 글을 쓴 대표 작가이다. 중일전쟁과 무한삼진 함락 이후에도 별 행보가 없던 그는 태평양전쟁 이후 친일에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인 서정주와 비슷한 행보이다. 그때부터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는데 일본어와 조선어의 양이 비슷하다. 그는 소설의 주제나 관심에 따라 언어를 달리 사용하였다.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조선

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은 조선어로만 창작하는 조선어 전용론이다. 조선어로만 창작한 작가들은 이태준·이기영·오장환·이근영·지하련·채만식 등 다수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어로 창작하기에는 언어적으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저항 시인들의 독립 의지

당시 자발적이든 강요를 받았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작가들도 있었지만, 윤동주·이육사·한용운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 시인들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맞서는 독립 의지를 담아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 활동이 금지되면서 저항 시인들은 고초를 겪게 된다. 때문에 윤동주·이육사·한용운 등은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옥에 갇히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별세하였다.



나폴레옹 3세와의 전쟁

병인양요

19세기에 조선을 탐낸 나라는 일본·청나라·러시아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각축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본 영국·미국·프랑스도 한때는 군대를 보내 조선을 위협하였다. 그중 1866년에 프랑스가 일으킨 병인양요는 조선인들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강화·김포로 나가 총력 저항을 펼친 전쟁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 정책

병인양요 이전인 1846년과 1847년에도 프랑스 함대가 무력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천주교 박해에 대한 항의 차원의 시위였지만, 이때는 1866년만큼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1866년에는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1840년대와 1860년대에 프랑스의 태도가 달랐던 것은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와 관련이 있다. 1789년 혁명으로 1792년에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1804년 나폴레옹 황제 즉위와 함께 제정으로 전환된 프랑스는 1815년 나폴레옹 몰락과 함께 왕정으로 완전히 복귀하였다. 하지만 1848년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재차 회복(제2공화정)되었다. 이때 대통령이 된 인물이 나폴레옹 3세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가 적극 추진한 정책은 해외 식민지의 확장이었고, 그의 시선이 머문 곳 중 한 곳이 조선이었다. 1856년에는 인도 차이나 사령부에 조선 식민지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명령한 일도 있었다.

프랑스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정세 변화도 큰 몫을 하였다. 1840년 제1차 아편전쟁 이래 수세적 입장

에 놓인 청나라에서 민중의 반외세 투쟁인 태평천국운동(1851~1864)이 발생하여 중국 동남부 일부가 점령되었다. 1856년에 발발한 제2차 아편전쟁에서도 서양열강이 청나라를 제한적으로 굴복시키는 데 그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두 사건의 영향으로 1860년대부터 서양열강은 중국을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중국을 빙 둘러싼 티베트-미얀마-베트남-타이완(중국령)-오키나와-조선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였다. 빙 둘러싼 동맹국이나 변경이 청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866년에 조선에서 병인양요와 더불어 미국에 의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고, 1871년에 미국에 의한 신미양요가 발생한 데는 이러한 정세 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병인양요 발발

조선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병인년에 벌어진 천주교 박해가 전쟁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가 되었다. 병인박해로 불리는 이 사건은 역대 최대의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프랑스 선교사와 조선인 신도들의 대거 희생을 초래하였다. 이때 탈출해 7월 7일(양력) 산둥성 즈푸에 도착한 리델 신부에 의해 사건 전모가 알려짐에 따라, 베이징 동쪽 텐진에 주둔 중이던 로즈 제독이 9월 18일 전함 3척을 이끌고 즈푸를 출발하게 되었다. 병인양요는 이렇게 발발하였다.

그전인 7월 13일에 청나라 총리각국사무아문(외교부) 수석대신인 공친왕에게 보낸 “조선 국왕이 우리 프랑스인을 체포한 날은 그 치세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라며 “며칠 안에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라는 서한을 통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프랑스 군대는 인천 앞바다와 양화진을 거쳐 한강에 침투하였다. 항행 중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측량을 하고 한편으로는 위협을 가하였다. 조선은 전통적 관행에 따라 이양선에 음식물을 제공하였지만, 프랑스군은 지금의 서울 강서구에 있었던 염창항에서 공격을 가해 조선 수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맞서 조선의 방



정족산성 전투(강화역사관)

어 태세가 공고해지는 속에서 프랑스군은 9월 27일 서강(한강의 양화진-마포 구간)에서 뱃머리를 돌렸다. 10월 1일, 프랑스군은 영종도와 육지 사이의 작약도를 출발해 즈푸항으로 귀환하였다.

돌아온 프랑스군

불과 열흘 뒤인 10월 11일, 로즈 제독의 군대는 즈푸항을 재출발하였다. 제2차 침공에 동원된 병력은 제1차의 곱절을 넘었다. 군함은 7척으로 늘어났고, 병력도 1500명 수준이 되었다. 배가된 전력을 바탕으로 프랑스군은 10월 16일 강화도 점령에 성공하였다. 한양으로 통하는 수상 길목을 장악한 것이다. 그런 강화해협 동쪽의 통진부를 점령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화력이 우세한 프랑스군이 한양을 향해 목을 조여 오는 위기 상황에서 가슴悶클한 일이 벌어졌다. 일반 백성들이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전투에 자원한 것이다. 각도

백성들이 의병·승군·포수군·보부상부대의 일원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11월 1일까지 한강 양화나루 지역에 의병 4천 명이 배치될 수 있었다. 포수군 270여 명도 김포에 배치되었다. 승군들도 양주목사의 지휘 하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포진하였다. 보부상 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백성들도 한양 사수를 위해 나섰다.

이렇게 긴장이 팽팽해지는 가운데, 로즈 제독은 조선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선교사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정승을 처벌하고, 불평등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프랑스군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개방시키는 데 일차적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김포 쪽 문수산성에서 조선군이 뜻밖의 승리를 거뒀다. 이로 인해 조선 진영의 사기가 오르면서 양헌수가 이끄는 관군 부대가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전쟁의 전체 판도를 바꿔 놓게 되었다.



양헌수 초상화(강화역사관)



병인양요 유적지인 강화포수전첩기념비

호랑이굴에 잠입한 조선군

강화도가 프랑스군에 점령된 상황에서 양헌수 부대는 대담한 작전에 뛰어들었다. 호랑이굴에 잠입하기로 한 것이다. 양헌수는 강화도 남부 요새인 정족산성을 장악 하면 적군을 손바닥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프랑스군 몰래 강화도로 들어가 정족산성을 점거 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약 500명의 병력을 3진으로 나눈 그는 강화해협 도하작전을 벌여 정족산성까지 무사히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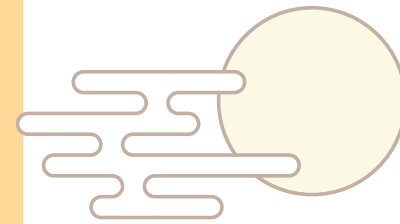
첩보를 입수한 로즈 제독은 병력 150명을 파견해 산성 탈환을 시도하였다. 프랑스군은 남문과 동문을 공략하는 작전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프랑스 병력이 집중되었다. 이 상황을 양헌수는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다. 프랑스군이 접근하기 전에 남문과 동문 쪽에 병력을 매복시켰던 것이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양헌수 부대는 프랑스군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곳곳에 매복한 조선 포수들은 프랑스군의 접근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프랑스군이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문 쪽에서 총성이 울리고 프랑스군 1명이 쓰러졌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동문과 남문의 조선군이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예상치 못한 매복 공격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프랑스군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상 열세에 놓인 조선군이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상대를 막아낸 결과였다. 이 전투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꺾는 데 기여하였다. 11월 18일 프랑스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조선에서 퇴각한 것이다. 병인양요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의병·포수·승병·보부상들이 관군과 협력하여 프랑스군의 한양 진격을 막고 그들을 강화도에서 쫓아낸 전쟁이었다.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조선인들의 의지가 우수한 화력을 앞세운 유럽 강대국을 물리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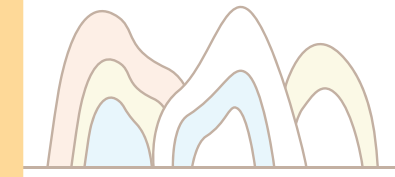
병인양요는 많은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군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강화도는 대대적인 약탈의 상흔을 안게 되었다. 강화도에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도서들과 은폐 887.55kg 등을 프랑스군과 함께 떠나보내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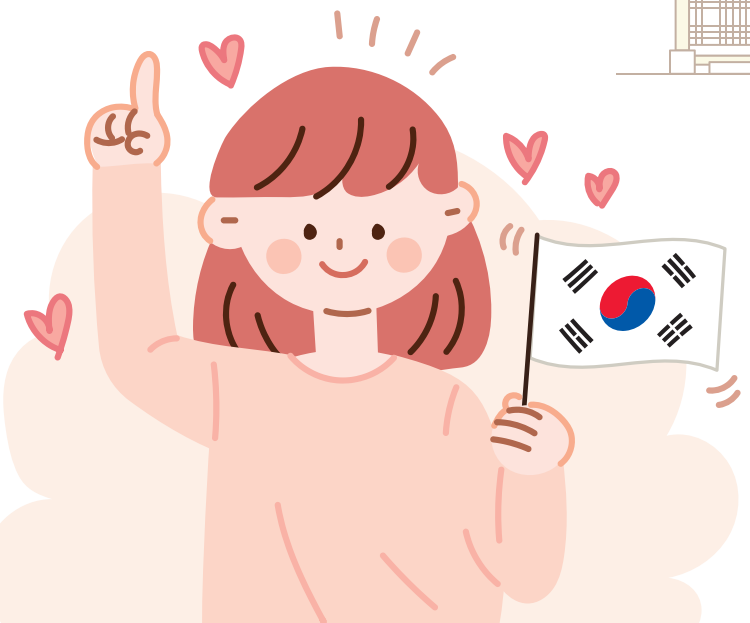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수상작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다

독립기념관의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을 통해 충청, 상하이 등의 경로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후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희생한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뭉클함을 느꼈다.



중국 무석한국학교 1학년 김다연





겨울 속으로 향한다

삼척

겨울은 자연의 속내를 들여다보기 좋은 계절이다. 어디 자연뿐일까. 탁 트인 바다를 달려 바다를 마주하면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바람을 안고 강원도 삼척으로 향한다. 그곳은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해안도로와 수백 년 동안 시인 묵객들이 풍월을 읊었던 누각, 척박한 겨울을 이겨낸 선조들의 옛 가옥이 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달리다

삼척항에서 증산해변까지 약 5km의 드라이브 구간을 ‘새천년도로’라 부른다. 이 구간을 달려본 사람들은 이곳을 동해안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는다. 검푸른 바다와 갯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하얀 파도, 푸른 송림이 어우러져 가다 서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도로는 바다와 맞닿을 정도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마치 바다가 살아있는 듯하다. 또 바람이 강한 날에는 도로 위로 솟구는 파도에 탄성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도로 중간에는 주차장과 휴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새천년도로가 시작하는 증산해변은 동해시 추암해변과 이웃해 있다. 감동적인 해돋이는 물론이고 기기묘묘한 기암괴석이 수석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운이 좋다면 장엄한 해돋이의 감동도 챙겨볼 수 있으니 가능한 일출 시각에 맞춰 찾아보길 권한다. 추암해변을 지나 증산해변을 거쳐 삼척해변에 이르면 겨울 바다의 고즈넉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호젓하게 바



다를 거닐어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상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차를 몰아 작은후진해변을 지나 비치조각공원에 닿는다. 10여 점의 조각 작품이 전시 중이다. 새천년 해안유원지에는 시선을 압도할만한 큰 탑이 있다. 바로 소망의 탑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취한 것과 아직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아쉽게 포기해야 했던 일들을 정리해도 좋겠다. 새천년도로는 야경 드라이브도 꽤 운치가 있다. 검푸른 빛 바다와 육지의 조명과 궤적을 남기며 달리는 차량 행렬이 볼만하다. 시선을 바다로 돌리면 수평선을 수놓는 오징어 배들의 불빛이 장관이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알려주기라도 하듯 경이롭기까지 하다.

- 1 새천년도로에 있는 쉼터
- 2 새천년도로의 야경
- 3 삼척해변의 포토존
- 4 소망의 탑



5



6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벽에 대고 싶구나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도 많기도 하구나
나그네의 설움도 둘 데 없다

절벽 위에 선 누각, 죽서루

대관령의 동쪽을 관동이라 부른다. 그곳에서 경치 좋은 곳 여덟 곳을 골라 관동팔경이라 부른다. 고성 의 청간정, 강릉의 정포대, 삼척의 죽서루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삼척의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에서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다. 죽서루 앞에 서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누각을 받치는 기둥이다.

들쭉날쭉 하나같이 똑같은 높이가 없다. 평평하지 않은 천연 암반 위에 누각을 세우면서 17개의 기둥 중 9개는 자연 암반을 기초로, 나머지는 돌로 만든 기초 위에 세워졌다. 기술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옛 선조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랭이질’이라 불리는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것이다.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며 돌을 깎아내는 대신 나무 기둥의 밑동을 잘라냈다. 돌과 나무를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였다. 그랭이질이 제대로 된 기둥 위에 널판을 얹으면 그 위로 걸어 다녀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2층짜리 누각인데도 계단 없이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드나들도록 설계됐다. 기둥이 17개 홀수인 이유도 암벽 사이로 드나들기 편하게 한쪽은 기둥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전통 건축의 진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각에 오르면 풍경이 장쾌하다. 기둥 사이는 벽이 없어 바람이 쉽 없이 오가며 잔잔한 곡을 연주하듯 소리를 읊어댄다. 마치 자연의 합주곡을 듣는 듯하다. 오십천과 어우러져 절벽에 우뚝 솟은 죽서루에는 어떤 이들이 머물렀을까. 고려와 조선 시대 최고의 시인과 묵객이 줄줄이 찾아와 시와 그림을 나누었다. 누각 안에 걸려있는 수많은 현판이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다. 그중 조선 가사문학



7



8

의 대표작 <관동별곡>을 지은 정철(1536~1593)의 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와서 내금강과 외금강, 관동팔경을 유람한 뒤 명작을 남겼다.

강원도의 겨울나기, 너와집

삼척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너와집을 볼 수 있다. 너와집은 환경에 순응한 독특한 가옥 양식으로 전나무, 소나무 등을 나뭇결대로 쪼갬 뒤 기와처럼 지붕을 이어 지은 집이다. 너와를 올리다 보면 너와와 너와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이 오히려 환기와 연기 배출은 물론이고 보온 효과도 있다고 한다.

현재 너와집을 볼 수 있는 곳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이곳에 너와집 3채가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에 지정되어 있다. 도로와 인접한 곳에 너와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와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너와집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마을에서는 화전민이 신고 다녔던 설피 체험도 할 수 있다. 설피는 신 바닥에 덧대어 신는 것으로 이것을 신으면 눈에 빠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다.

너와집 내부에는 ‘코클’과 ‘화티’가 설치되어 있다. 코클은 일종의 벽난로 같은 것으로 난방은 물론 조명으로도

사용한다. 방 모서리 바닥에서 50cm 남짓한 높이에 설치한다. 화티는 아궁이에서 땀 불을 담아두는 곳으로 코클처럼 조명과 난방 역할을 한다. 화티에 담아두는 불꽃을 ‘두둥불’이라 한다. 화력이 좋고 오래 타는 관솔을 주로 사용한다. 관솔은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나 옹이로 화력이 세고 오래 타서 불이 귀했던 화전민들에게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불씨였다. 너와집은 놀랍게도 집 안에 외양간이 있다. 날씨가 춥고 들짐승이 자주 출몰하는 산간지역에서 가축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너와집은 얼핏 보면 매우 허술해 보인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는 벌어진 너와의 틈을 눈이 덮음으로써 외부 공기를 차단해 훈훈하다고 한다. 군불을 피울 때는 연기 덕분에 눈이 서서히 녹아서 집이 무너질 염려가 없으며 연기에 훈연 된 너와는 벌레가 잘 피지 않아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너와는 7~8년에 한 번씩만 교체해주어도 거뜬하다. 너와집은 미완성의 집처럼 보이지만 2% 부족한 것을 자연이 채워주는 현명한 집이다.

- 5 죽서루
- 6 당대 최고의 시인 묵객들이 찾아 글을 남긴 죽서루
- 7 눈이 내려앉은 너와
- 8 겨울의 너와집

식민주의에 희생된 조선의 호랑이

글 강성을 영화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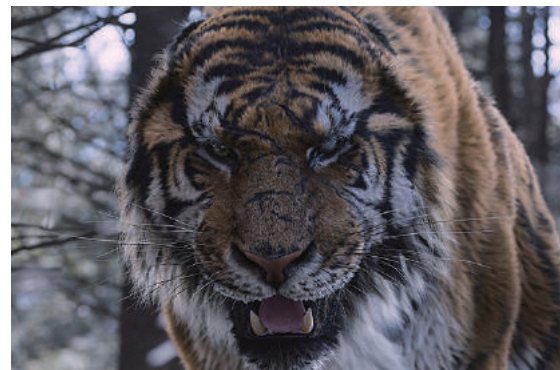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제국주의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을 많은 영화들은 특정 인물을 통하여 그리는 방법을 즐긴다. 대개는 사악한 일본인이나 악질 친일파가 등장하는데, 이 방법은 영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자체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덜 고민하게 만든다. 제국주의의 폭력성이 개인의 폭력으로 곧바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명포수와 호랑이

영화 <대호>가 다른 영화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악질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가장 사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고관도 그리 사악하지 않고, 친일파 군인이나 일제에 협력한 인물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대호>는 기존의 영화와 다른 방식으로 일제강점기를 재현하고 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1925년, 공간적 배경은 지리산 아래 마을이다. 최고의 명포수였지만 지금은 늫둥이 아들 석과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천만덕이 주인공이다. 무슨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그는 늙은 몸을 이끌고 산을 누비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들 석은 약초꾼이 아니라 포수가 되고 싶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여 사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귀국 전에 호랑이가 가족을 손에 넣으려는 일본 고관이 지리산에 남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인 대호를 잡기 위하여 작전을 펼치는데, 대호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아들 석이 사냥에 합류하였다가 대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영화는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석의 시신을 대호가 만덕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아, 시신을 사이에 두고 대호와 만덕은 서로를 인지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10년 전인 1915년에 만덕은 대호의 아버지를 죽이고 살아남은 대호를 산속의 굴에 넣어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대호는 은혜를 알고 만덕에게 석의 시신을 가져다준 것이다. 일종의 보은 설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만덕과 대호를 마치 짝패처럼 그리고 있다. 부인과 석을 잃은 만덕, 짝과 새끼를 잃은 대호를 교차로 편집한다. 집에서 석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만덕과 굴에서 죽은 새끼들을 쓰다듬고 있는 대호는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총상을 입은 대호가 만덕과 함께 죽음을 맞는 것으로 영화는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이렇게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 만덕과 함께 죽음을 맞는다.

제국주의의 자연 정복과 파괴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와 조선 최고의 명포수 만덕을 죽게 만든 것은 악연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식민주의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여겨야 한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군(山君)으로 불리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다. 만덕은 어느 산이든 산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며 대호를 잡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한때 같이 사냥을 하였던 도포수와 사냥꾼들이 도움을 청하며 왔을 때에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하였고, 일제 관리들에게도 협력하지 않는다. 새끼였던 대호를 산에 풀어주고 먹이를 줘서 살도록 하였던 그가 아닌가.

그러나 일본 고관으로 상징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대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에는 이미 호랑이가 모두 사라진 뒤 지리산에만 대호가 남아있었는데, 이 호랑이마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길잡이나 군인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포기하기는커녕 산을 무자비하게 폭파해서라도 대호를 잡으려고 한다. 고관이 대호를 잡으려는 이유는 대호의 가죽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다. 단지 그 이유만을 위하여 무지막지한 수단을 동원하고 수많은 인명을 죽게 만든다.

이 부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설정한 후 혹독하게 파괴하는 일제의 정신은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설정한 서구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규정한 서구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길을 걸을 때 일제는 그 정신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을 파괴하면서까지 대호를 잡아 자신의 장식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만덕으로 대표되는 조선은 산군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새끼였던 대호를 산에 풀어놓으면서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식민지 조선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영화의 결말인 만덕이 대호와 함께 유명을 달리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충을 들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

최민식 정만식 김상호 정유빈 오스기 텐 정석원 세바스티안 지니 사카키 (신세계) 박훈정 감독 작품

12월 16일 대개봉

대호(2015)

드라마 | 감독 박훈정

출연 최민식(천만덕 역), 정만식(구경 역), 김상호(칠구 역)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말말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이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신조어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내가 선호하는 '○세권'

'○세권'이란 역세권, 학세권 등 다양한 입지 조건을 포괄해 설명하는 부동산 용어로, '○' 안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 글자를 넣어 의미를 부여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입지를 고려할 때 교통과 상권 시설 부분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편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철도역과 근접할수록 상품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철도역에서 500m 반경 또는 도보 5~10분 내외의 지역을 뜻하는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반면 최근에는 각종 생활 인프라의 중요도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과 자연환경에 이점을 두고 집을 고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집 근처 도보 5~10분 내외에 주요 시설에 의미를 담아 '0세권'이 형성되고 있다.

가령 인근에 학교나 학원가 등 학군이 뛰어난 지역은 '학세권', 마트나 백화점과 가까운 '몰세권',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편의점 인근을 '편세권'이라 칭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지역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원과 거리가 가까운 '공세권', 산·강·호수가 주변에 있는 '숲세권'이나 '수세권', 대형 병원이 가까운 '병세권' 등이 있다.

그밖에 마니아층이 선호하는 특별한 세권들도 있다. 요즘 서울시의 공용 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따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따세권이란 따릉이 정거장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은 버스를 이르는 '버세권'으로, 여기에서 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직통버스인 M버스 정류장을 이르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타벅스 인근 지역을 '스세권'이나 '별세권'으로 칭하고 있다.

나만의 특별한 '홀로 가'

'올로'는 들어봤어도 '홀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홀로 가(家)'란, 자기만의 개별화된 주거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혼자라는 뜻의 '홀로'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란 뜻의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그리고 집을 뜻하는 한자어인 '가(家)'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이는 단순히 혼자 즐겁게 산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혼자 사는 주거 공간에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하

거나 취미를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제로 누리면서 살겠다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자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테마를 설정하여 집안에 특별한 공간을 꾸미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티타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테라스를 이용해 집안의 아담한 카페를 꾸밀 수도 있고, 식물이나 화분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농원이 되기도 한다. 또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집 한편에 '바(bar)'를 만들 수도 있고, 개그우먼 이국주처럼 집안에 포장마차를 만들 수도 있다. 그 밖에도 기존의 관념을 탈피해 거실을 책방으로 또는 편의점으로 꾸미는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가꾸어나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의 개념이 아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퇴근 후에 돌아와 취침하는 공간으로의 휴식처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어디로 갈까 '렌트푸어, 청포족'

2010년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좀 더 싼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사람이 늘어났다. 또 집주인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반(半)전세가 크게 늘었고, 집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신랑거루족도 등장하는 등 전세난으로 인하여 많은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에는 주택임차료 혹은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를 일컬어 '렌트푸어(rent-poor)'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는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출이자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어렵게 사는 사람인 '하우스푸어(house-poor)'의 전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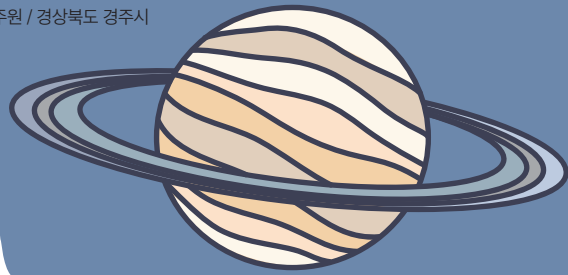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가계부채의 60%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과거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하우스푸어가 생겨났고, 이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렌트푸어가 양산된 셈이다. 돈을 모으기 힘든 렌트푸어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년 또는 4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등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젊은 층에서는 이르게 청약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포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

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의 청약 가점이 급등하였고, 이에 20~30대 청년들이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84㎡ 이하의 주택은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이 유리해지는데, 적어도 청약 점수가 64점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수는 3인 가족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1인 가구 또는 아이가 없거나 전세난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월급날



오늘은 월급날이다. 현관문을 열자 밀려 들어 오는 찬 공기가 야속하다. 아침 뉴스에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려서 어제보다는 따뜻할 것이라 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잠시 걷는 동안 살을 파고드는 찬 공기에 옷깃을 여머도 심장까지 에인다. 월급날이라서 그런지 발걸음이 더 무겁다.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생애 진 빚을 현생에서 매달 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도 든다.

그리고 보니 첫 월급을 받던 때가 생각난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갔던 영어 방문 학습지 교사였는데, 지원금이 있어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큰 목돈이었다. 매월 급여 날이 다가올수록 이유 없이 실실 웃음이 나오고, 어떤 실수에도 관대했었다. 다달이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은 날들이었다. 이제는 마치 타인의 추억인 것처럼 낯설다. 요즘 내 월급은 계절과 연중행사에 따른 가정경제의 소비량과 상응하

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만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난방비 고지서, 두 아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각종 연말 신년 행사들, 그리고 매년 겨울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천식, 방학이라 집에만 있을 두 명의 중학생을 둔 가장인 나는 그저 생존형 인간일 뿐이다. 어린 시절 첫눈을 기다리는 동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럴에 들썩이던 어깨도, 딸랑딸랑 울려대는 구세군 냄비를 지나친 적 없던 오지랖도 이제는 없다.

눈이 온다고 하면 운전을 걱정하고, 캐럴이 울리면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걱정하고, 여기저기서 불우이웃을 도우라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불우이웃인데 누굴 도와야 하지’ 하며 울컥하는 심정이 이제는 당당하기까지 하다. 고령화니 취업난이니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서인지 이제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만성 무기력에 폭 담겨 사는 것이다. 회사에 도착해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 월급날이니 술 한 잔 하자든

가, 아예 밝은 얼굴로 대놓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나마 세상의 삭막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에 위로가 되는 순간이다.

오늘따라 업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퇴근하자마자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한다. 세상이 편리해져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달을 고생한 대가를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단 몇 초만에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 사라졌을지, 반 토막이 났을지 모르는 월급에 대한 의례를 행하려 은행을 향해 걸어가

를 적어도 저 직원에게 만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다.

옆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킨다. 커피의 본연의 맛을 음미한다. 통장을 보고 난 후에 커피 맛이 달라지니까 원래의 맛을 알아야만 했다. 통장을 연다. 평소에 항상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순간에는 나 역시도 사회의 명확한 구성원임을 실감한다. 국가적 경기 침체로 인한 파장은 내 월급에도 확실히 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자동이체 쓰나미가 휩쓸 후 더욱 황량하다. 순간을 스치고 소멸하는 별똥별의 운명을 닮은 월급에 조의를 표한다.

다시 커피를 마시니 역시 커피의 맛이 바뀌어 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궁상맞던 부모님이 싫어 곧잘 짜증을 내며 ‘왜 그렇게 밖에 못 살지?’ 하며 한심스러웠는데, 그 벌을 받는 것인가도 싶다. 집 근처 통닭집에서 두 마리 포장을 부탁한다. 그래도 월급날은 버릇처럼 양손에 무언가를 사서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로망은 남아 있다. 그냥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추위 때문인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면 사춘기라는 것을 잠시 잊은 나의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참새 새끼처럼 달려든다. 아이들은 나의 월급날을 잘도 기억한다. 어린 시절의 엄마가 월급날만 되면 맛있는 걸 사

서 일찍 오는 것이 좋았던 모양이다. 그것이 각인되어 한 달에 한 번은 유아 시절의 귀엽고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하나 꺼내어 내밀어 주고, 자신들은 콜라 잔을 채우고, 다 함께 건배를 한다. 순간 모든 서러운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사연이 아무리 많았어도 월급날은 해피엔딩이다.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중심축이어야

7세기 중엽의 신라 통일전쟁은 최초의 국제전이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7세기 중엽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제전으로 결정되었다. 동북아의 한·중·일은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무엇보다 한·중·일은 지나친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특히 일본은 미국과 배타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7세기 중엽 신라의 통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제전이었다. 백제의 침략에 위협을 느낀 신라 김춘추(金春秋:604~661)가 642년 평양을 방문하여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연개소문은 진흥왕(眞興王:540~576)이 551년 고구려 한강 상류지역을 빼앗은 것을 트집 잡아 이를 거절하였다. 김춘추는 다시 648년 당나라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뜻밖에 당나라의 제안으로 군사동맹까지 맺음으로써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 민족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한(漢)족과는 끊임없는 전쟁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진(秦)·한(漢)의 고조선 침략과 수(隋)·당(唐)의 고구려 침략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동맹으로 동서(東西) 세력이 형성되고 고구려, 백제, 일본과 중국 북방민족이 연합하여 남북 세력을 형성하여 이에 대항하였으므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는 양자구도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사상 최대의 국제전이 벌어졌다. 이 전쟁이 동서 세력의 승리로 돌아가자 중국 북방민족은 중국 한족과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되었다. 이후로 중국 한족은 한반도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 다만 북방민족인 만주족과 몽고족의 침략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고려를 거쳐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1,300여 년이 지속되었다.

한(韓)·한(漢) 동맹에 첫 도전은 최영의 요동정벌이다

이 국제질서에 아무런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첫 도전은 고려의 최영(崔瑩:1316~1388) 장군이었다. 최영은 명(明)을 건국(1368년)한 주원장(朱元璋:1328~1398)이 철령위설치 등 고려에 대해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가하자 1388년 거국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요동정벌을 일으켜 명나라에 대항하였다. 고려 조정의 의견은 크게 양분되었다. 최영의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이색(李穡:1328~1396)·정몽주(鄭夢周:1337~1392) 등 신흥사대부들은 신군부(李成桂:1335~1408)와 결탁하여 위화도(威化島)회군으로 요동정벌을 좌절시키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려 최후의 기동인 최영은 처형되었다. 당시 신흥사대부인 대사성 윤소종(尹紹宗:1345~1393)은 최영을 단죄하는 논고에서 “최영의 공은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죄는 천하에 가득하다”는 아주 절묘한 선고를 내렸다. 공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는 그 나라는 고려였고, 죄가 천하에 가득하다는 그 천하는 명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니 윤소종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러니 “최영의 죽음은 최영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꺾임이요. 이로써 민족옹비의 상징인 진취적 기상과 자주성은 사라지고 중국에 대한 사대의 예가 터를 잡게 된 것이다”라고 함석헌(咸錫憲: 1901~1989)은 개탄하였다.

그런데 이 한(韓)·한(漢) 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는 1894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다. 물론 그 이전 1842년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위세는 잠자는 사자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략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동북아에서조차 중국의 존재가 꺾인 결



압송되는 전봉준

정적 계기는 청일전쟁이었고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1894년 1월 11일 전라도 고부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捧準:1853~1895)을 주축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들고일어난 동학농민군은 그해 4월 7일 정읍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조선에 들어온 청국군과 일본군이 충돌하여 양국 사이에 험악한 정세가 벌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하루속히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킬 필요를 느껴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면서 휴전을 제안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조건으로 5월 7일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 전라도에 53개 집강소를 설치하여 행정권을 장악하고 치안을 담당하면서 동학농민군은 해산하여 각기 출신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휴전은 동학농민군에게 불리하였다.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외

국군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5월 5일 2,800명의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하였고, 5월 9일 8,000명의 일본군이 인천항에 들어와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정은 6월 1일 양국 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부 내에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는 등 자주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7월 23일(음력 6월 21일) 경복궁을 기습하여 대원군을 앞세워 쿠데타를 단행하여 친일내각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친청 민씨 정권은 붕괴되고 일본의 내정간섭은 노골화되었다. 일본군은 선전 포고도 없이 7월 25일 충청도 천안의 성환에서 청국군을 기습하여 기선을 제압한 후 8월 1일 선전포고를 하고 속전속결로 결판을 내려 하였다. 일본군은 평양에 집결한 청국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청국군보다 14배나 많은 17,000명의 대병력으로 3일 만인 9월 15일 청국군을 몰아내고 9월 17일에는 황해에서 청나라 주력 함대를 격파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로부

터 주한 일본공사관은 청국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게 되었다. 조정과의 화해로 전주성을 풀고 물러났던 동학군이 척왜(斥倭)의 깃발을 들고 다시 봉기하였다. 이때 일본은 조선 침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동학농민군임을 간파하고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1894년 11월 15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은 일본군에게 전멸되었고 재기를 도모하던 전봉준·손화중 등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전봉준은 교수형에 처해진 첫 사례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의 한 사람인 서광범(徐光範:1859~ 1897)이 주재한 이튼바 최초의 근대적 법정에서 1895년 3월 29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 이튿날 새벽 2시 교수형에 처해졌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체포될 때 살인적인 몰매에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당당하고 엄정한 기상 형형한 눈빛, 청수한 얼굴로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어두운 시대에 민중의 선구자가 되어 세상을 진동시킨 당당한 모습이었다. 일본 신문기자 다카미가메(高見龜)는 법정에서 그의 최후 모습을 참관하고 “사형을 선고받으면 대개 혼비백산하는 법인데 참으로 늠름하고 대담한 모습이었다”고 술회했다. 전봉준은 형이 집행되기 직전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때가 이름에 천지가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을 다함에 영웅도 어찌할 수 없구나.
백성 아끼고 정의 세움에 나 잘못 없건만
나라 위한 붉은 마음 알아줄 이 그 누구랴.

그때 그의 나이 41세였다. 이렇게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개혁의 반봉건·반침략의 동학혁명운동은 끝나고 말았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국제질서가 청일전쟁으로 무너지게 되자 조선을 먹잇감으로 한 열강들의 세력 다툼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보다 10여 년 전인 1885년 조선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일본·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야욕을 간파한 주한독일공사



관 부영사 부들리는 조선 정부에 스위스식 영세중립국 선언을 권유하며 일본의 동의까지 얻어냈다. 이때 일본이 동의한 것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유길준도 벨기에식 중립화 선언을 주장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청국의 눈치를 살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894년 청일전쟁 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더욱 노골화되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고종은 뒤늦게 영세 중립국 안을 수용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미 청·일 전쟁으로 조선에서 청국군을 몰아낸 일본군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꾀하고 있었고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려던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우호적인 상태에서 조선 정부가 추진하는 영세중립국 안은 먹혀들 리 없었다.

1904년 일본과 러시아의 전운이 짙어지자 조선 정부는 한반도가 전쟁터로 되었던 청일전쟁의 악몽을 떠올려 국내 외에 중립을 선언하고 프랑스·독일 등 대부분의 서양 열강의 동의까지 얻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조선을 그들의 군사기지화하였다.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본을 견제할 세력은 없었다. 러일전쟁은 미·영의 후원을 얻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침략전쟁은 끝없이 이어져 만주사변, 중일전쟁 급기야는 태평양전쟁으로 치달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으나 38선을 경계로 냉전체제라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평화와 공존 체제여야 한다

38선을 경계로 형성된 냉전체제의 동북아 국제질서를 깨버리려는 최초의 시도가 6·25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신라의 통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다. 이 국제전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그럼에도 어느 쪽의 승리도 없이 지금까지 휴전에 머물면서 냉전체제는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국제질서는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해서도 안 된다. 평화와 공존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국제 질서여야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은 이 철옹성 같은 냉전체제의 국제질서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남북 화해 협력이 세계 평화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큰 물결은 더디고 험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미묘하다. 냉전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일정한 세력 균형을 취하던 이들 주변국들은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혹은 남북 화해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은 해양세력 중심의 통일을, 중국은 대륙세력 중심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이익에만 혈안이다.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 미국은 북핵 문제, 일본은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불거지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이를 미끼로 전쟁할 수 있는 평화 헌법 개정까지 서두르게 되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가져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면에서는 구한말보다 더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 구한말에는 적어도 분단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시키려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냉전체제는 종식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란 수단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해답은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첫째, 남북 간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동질성과 화해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우리 민족 스스로 전쟁 억제에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는 양국 체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 미래의 교훈이 되어야 함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다. 만약 642년 김춘추와 연개소문이 서로를 인정하고 회담이 성공했다면 당시 한반도에서 16년(660~676)에 걸친 대 전란은 없었을 것이다.

둘째, 주변국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평화적인 공존, 공영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이 그들 나라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있는 한 우리의 통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과도한 경쟁관계나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 정부와는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미·중 어느 나라와도 지나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등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무기 경쟁을 지향하고 화해의 협력의 시대가 열리면 안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력 경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무력으로 통일한 결과 결국 후삼국이 재연되지 않았던가. 무력 정복이 아닌 왕건이 지향한 민족 융합의 통일정책이 더 이상 민족 분열을 막았던 점을 우리는 벤치마킹해야 한다.

넷째, 한국 외교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정치와 경제 어느 면에서도 한나라에 편중된 외교는 지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남방 외교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주목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01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친필 일기 기증식 개최



독립기념관은 지난 11월 16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4층에서 백산 지청천이 친필로 기록한 일기 5권과 해방 후 그가 활동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 기증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료들은 지청천의 외손인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이 기증한 것이다.

『지청천일기』는 1957년 1월 지청천이 사망한 후 차녀인 지복영 여사가 보관·관리해왔다. 2007년 지복영 여사가 사망하자 그녀의 아들인 이준식 관장이 소장하고 있던 중 2018년 문화재로 등록되었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지청천(1888~1957)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래 광복 직후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항일 무장독립군으로 활동한 정통 무장이다.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 총사령으로 항일 투쟁을 이끌었다. 광복 후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남은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다 1947년 4월 이승만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지청천일기』에는 1951년 5월부터 1956년 12월까지의 기록이 국한문 혼용되어 쓰여 있다. 근 6년에 이르는 기간 매년 1책씩 사용하였고, 1954년과 1955년은 1책에 쓰여 있어 모두 5권이 전해진다. 크기는 18.3×12.3cm이고, 양장으로 제본되었다. 표지에 인쇄된 '자유일기'는 일기장을 만든 업체가 표기한 것이다.

문의: 자료부 이재호 연구위원(041-560-0407)

지청천이 일기를 남긴 기간은 귀국 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여서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독립운동 시기를 회고하던 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청천은 2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국방위원장과 민주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중량감 있는 위치에서 국가 건설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자 좌절감을 느꼈고, 이러한 당시 감정이 일기 곳곳에 배어 있다.

“**금일은 한일합방의 국치일인데 조야 각계가 이날을 잊은 듯 관청은 물론 각 학교도 하등 기념행사가 없으니 한민족은 건망증인지?**” _1952. 8. 29.

“**이 생활(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에 염증 나고 모락을 모르고 협잡을 체득하지 못한 무인으로서 좀처럼 힘든 생활**” _1954. 5. 1.

이번에 자료를 기증한 이준식 관장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청천일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방 후 독립운동가 출신의 정치가가 겪었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고민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술심포지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지난 10월 24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제1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하였다. 본 행사는 기조강연과 4주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 기조강연을 맡은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 계보와 石島=獨島 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유미림 소장은 대한제국 시기에는 독도를 ‘석도(石島)’라고 표기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독도 관련 사료의 석도(石島)는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본격적인 주제발표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과 일본의 독도교육을 분석한 송휘영 교수가 맡았다.
- 제1발표에서 김태호 배곧누리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이 더욱 보편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독도 수호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독도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이 형성될 수 있게 보완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2발표에서 임선린 파주 선유중학교 교사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의 독도 관련 내용에 관한 분석’이라는 발표를 맡았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8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몇몇 교과서에서 독도가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 제3발표를 맡은 이두현 수원 영생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관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서에서 제시한 오류를 밝혀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 영유권 강화에 목적을 둔 독도 교육에서 독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미래 자원의 가치 등 우리 국토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깨닫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제4발표를 맡은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관련 교육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독도교육은 일본 문부성과 외무성, 내각관방, 지자체인 시·마·네현이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의 독도교육도 내용을 체계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은 독도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앞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독도연구와 독도교육에 한층 더 노력하기로 하면서 학술심포지엄을 마쳤다.



문의: 학술연구부 배영미 연구위원(041-560-0411)

03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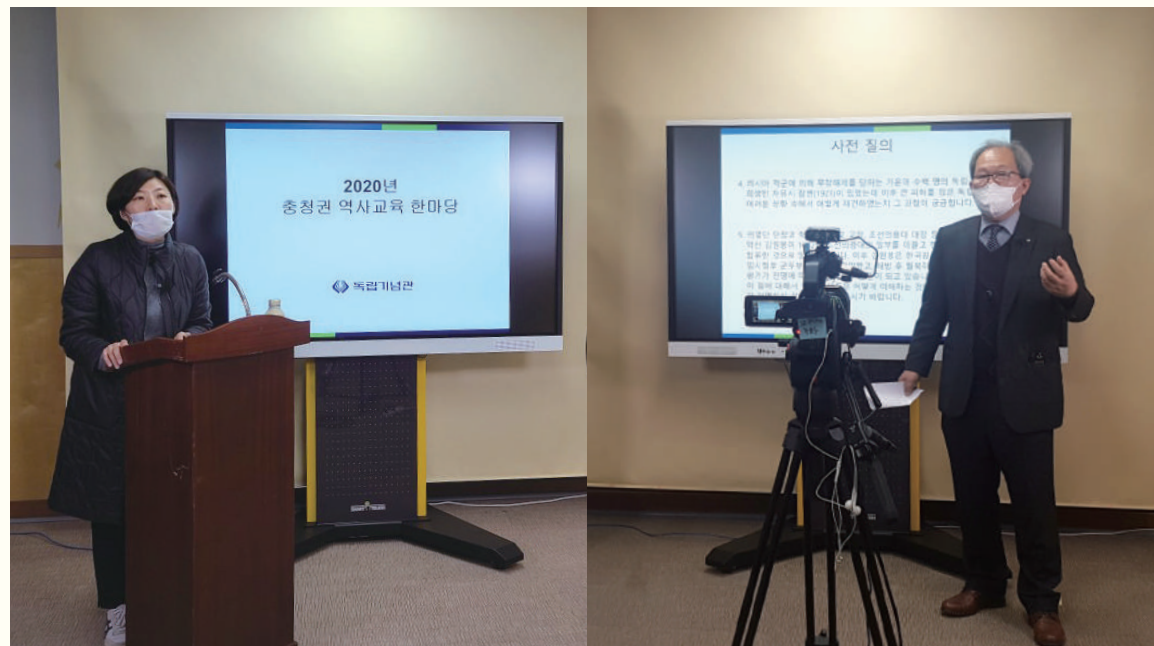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 충청권 4개 교육청 공동 주최

독립기념관은 지난 11월 7일 충청권 4개 교육청(대전·세종·충남·충북)과 공동으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온라인 교육 행사를 진행하였다.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은 충청권 고교생 역사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4개 기관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독립군과 광복군'을 주제로 한 특강과 질의응답, 각 동아리별 발표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여성광복군 지복영 여사의 아들인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에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동아리별로 직접 제작한 '우리 지역 독립운동 UCC' 발표와 발표 내용에 대한 O·X 퀴즈를 통해서도 우리 고장 독립운동사에 대해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충청권 4개 교육청 총 28개 역사동아리의 학생과 지도교사 23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교육청별 역사동아리 참여자 수는 대전교육청 6개교 6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개교 50명, 충청남도교육청 6개교 60명, 충청북도교육청 6개교 60명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역사학자가 될 역사동아리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가치 확산과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독립기념관은 앞으로 충청권 4개 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문의: 독립기념관 방인경 학예연구사(041-560-0261)

04

'기증, 역사를 나누다' 개최

2차 기증자료 특별전

독립기념관은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최근 기증된 자료 공개를 통하여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전시 기간: 2020. 11. 17.(화) ~ 12. 31.(목)
- 장 소: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 II (제7관 내)

독립기념관은 지난 4월 독립운동가의 글을 주제로 1차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한데 이어 11월 17일에 2차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막하였다. 2차 기증자료 특별전은 2018년과 2019년 독립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 10명의 자료 54점으로 구성하였다.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만큼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기증한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주로 선별하였으며, 작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 본인·중학생·기증자 3대가 기증한 자료 등도 공개하였다.

주요 전시 자료는 하와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강영각이 편집인으로 참여한 『아메리칸 코리안(The American Korean)』를 비롯하여, 이상재가 독립문을 건축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하는 이유를 밝힌 「독립문건설소(獨立門建設疏)」, 중국 상하이(上海) 한인청년동맹에서 활동한 변국이 광복 후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약사(韓國獨立運動略史)』, 중국 난통(南通)에서 김택영이 집필한 『한국역대소사(韓國歷代小史)』, 중국 자무쓰(佳木斯) 감옥에서 정훈모가 쓴 유묵 등이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에 기증된 독립선언서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전시에서는 국민들과 자료 기증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기증자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기증자가 직접 들려주는 자료 기증의 취지와 의미, 관람객에게 추천하는 자료 등도 소개하였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3주간 SNS를 통해 실시한 국민 참여 이벤트 '기증은 00이다' 대국민 공모 사진도 전시관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독립기념관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번 특별전을 준비한 학예사가 직접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해설'도 독립기념관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i815)을 통하여 12월 초에 공개한다.



문의: 독립기념관 전시부 허진희 학예연구사(041-560-0276)

그동안 월간 독립기념관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국군병사 휴가프로그램 이용 안내

독립기념관은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국군병사를 대상으로 추후 1일의 휴가를 보상하는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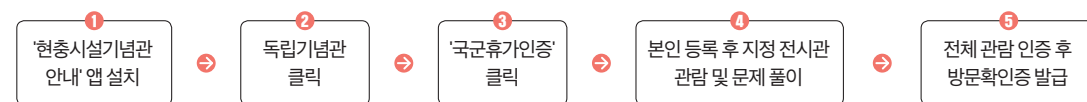
개요

대상	휴가 중인 대한민국 국군병사
안내처	종합안내센터(제2주차장 앞 또는 입구 바닥분수 옆)
지참물	휴가증 필수(해군·공군은 외출증·외박증 가능)

등록시간

절기/요일	동절기(11월~2월/화~일)	하절기(3~10월/화~일)
접수시간	09:30~15:20	09:30~16:20
관람시간	09:30~17:00	09:30~18:00

모바일 앱 이용방법



월간 독립기념관,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월간 독립기념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한기대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실천공학 기술자를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더 밝은 10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높은 취업률!

취업률 81.3%(2020 대학 알리미)
대기업 16.7%, 공공기관 및 공기업 15.2%



저렴한 등록금!

공학계열 236만원,
인문계열 165만원(1학기 당)



풍부한 장학금!

1인당 연간 351만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83%)



짙짙한 기숙사!

기숙사 수용률 69.5%(신입생 100%)
2인실 기준 학기당 48~68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문의전화 041-560-1234

모집기간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홈페이지

2021년 1월 7일(목) ~ 1월 11일(월)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산업경영학부

<https://ipsi.koreatech.ac.kr/main.do>

이달의

주요 행사

2020. 12



전시

야외 사진전

<19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증자료 특별전 2차

<기증, 역사를 나누다>



학술



교육



홍보

2020.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아와 사진전 〈19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12/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도 창의군 결성(1907)		태평양전쟁 발발(1941)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1941)		
13	14	15	16	17	18	19
한인애국단 조직(1931)						
20	21	22	23	24	25	26
		이재명 의거(1909)				
27	28	29	30	31		
	나석주 의거(1926)					